

흰머리 염색해주던 막내딸...통곡속 발인



서울 이태원 헬러윈 축제에서 참변을 당한 막내딸은 가족을 뒤로한 채 마지막 여정을 떠났다.

이태원 압사 참사 나흘째인 1일 오전 전남 장성군 장성읍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A(19)양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검정 상복을 입은 A씨의 초중고교 동창생 10여명도 분향소에 모여 묵념하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켰다.

A씨의 아버지는 장례지도사가 건넨 막내딸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영정 속 딸의 얼굴을 연신 쓰다듬으며 "아이고 먼저 가서 이 아빠를 울리나"며 오열했다.

A씨의 언니는 친구처럼 지낸 동생의 영정을 들고 운구 차량으로 향했다. 뒤를 따르던 동창들은 "OO야"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했다.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 애써 얼굴을 가리는 동창들도 보였다.

A씨의 어머니는 부축을 받아 발길을 힘겹게 옮겼고, 쏟아 낸 눈물 탓에 상복 소매단단이 푹 젖어있었다.

직장동료들과 이태원 헬러윈 축제서 참변 초·중·고교 동창생 10여명도 마지막 배웅

A씨의 관이 운구차량에 실리자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다.

유족은 "묵념합시다"는 소리에 맞춰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손을 모은 채 고인의 영면을 바랐다.

1남2녀 중 막내인 A양은 전남 지역 미용 관련 고등학교를 나왔다.

평소 A양은 "우리 딸, 언제 아빠 머리카락 잘라줄 거야"라고 묻는 아버지에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염색 이랑 머리도 예쁘게 해줄게"라며 살갑게 대했다.

A양은 6개월 전 서울의 미용실에 취업했다. 갓 성인이 된 딸을 타지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자신의 사진을 보내며 안부를 전했다. 지난 추석 때 고향 전남 장성을 찾아 아버지의 머리도 직접 염색할 만큼 다정한 딸이었다.

A양은 헬러윈데이를 앞둔 지난달 10월 29일 직장 동료 7명과 함께 이태원을 찾았다가 인파에 파묻혀 변을 당

했다. 동료 3명도 유명을 달리했다.

다음 날 경찰로부터 'A양이 숨졌다'는 비보를 접한 아버지는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

아버지는 "사고 당일 오후 5시에도 직원들과 함께 입고 갈 헬러윈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한순간에 자식을 잃어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운집한 사람들을 위해 행정기관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눈시울을 붉혔다.

10월 29일 오후 10시15분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주변 좁은 골목에서 사람들이 엉키면서 156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에는 아외 마스크 해제 뒤 맞이하는 첫 헬러윈을 앞두고 10만 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전남 지역 사망자는 A씨를 포함해 3명이다. 광주는 7명이다.

김재환기자



해양경찰교육원, '모범공무직' 제도 신설 추진

해양경찰교육원(원장 여인태)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모범공무직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광양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광양읍-봉사단체, 협업 봉사활동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광양읍 맞춤형복지팀 및 봉사단체와 함께 광양읍 기초생활수급자(장애가구)를 방문해 소방안전점검 및 생활불편해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광양=김현근기자



완도소방 119생활안전순찰대, '넙도 소방' 안전교육 실시

완도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노화읍 넙도를 방문하여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광주남부소방, 지역응급의료기관 간담회 및 '119안심콜 서비스'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간담회 및 119안심콜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여수경찰, 교통사고 위험지점 플래쉬윙카 설치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여수 국가산단지역 교통사고 발생지점 및 위험지점에 100여개의 플래쉬윙카를 설치하였다.

여수=김현근기자



무안경찰,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 안전삼각대 설치 보급 실시

무안경찰서(서장 박상현)는 농번기철 경운기와 트랙터등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용 안전삼각대를 경운기 후방에 부착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다.

무안=이기성기자

경북 봉화 광산 매몰사고, 구조 예상 지점까지 81m 남아

시추작업 위한 천공기 3대 추가 투입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 발생 7일째인 1일, 구조 예상 지점까지 81m를 남겨 놓게 됐다.

구조 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제2 수직갱도 2구간 작업은 오전 8시 기준 19m까지 진행됐다"며 "앞으로 작업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할 경우 구조 예상 지점까지 81m가 남아 있고, 하루에 10여m씩 작업하면 앞으로 8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작업에 여러 변수가 있어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립된 작업자 2명은 지하 190m 제1 수직갱도에 갇혀 있다.

구조 당국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제2 수직갱도에서부터 선로를 깔며 진입로를 만들고 있다.

제2 수직갱도 진입로는 수평거리 45m인 1구간, 100m인 2구간으로 나뉜다.

1구간 45m의 작업은 마무리 됐고, 현재 2구간에서 구출 진입로

19m를 더 확보했다.

고립된 작업자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부터 시추작업에 천공기 3대가 추가 투입된다.

구조 당국은 "시추작업은 오전 8시 기준 천공기 98mm가 지하 144m까지 뚫었다. 76mm는 측량 및 기반을 조성해 곧 시추에 착수할 예정이다"라며 "98mm는 오늘날 자정 무렵 구조 예상 지점 도착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가 투입되는 천공기 3대 중 76mm는 현재 도착해 설치 중"이라며 "오후에 2대가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작업이 완료돼 갱도에 고립된 작업자들의 생존이 확인되면 시추공을 통해 통신시설, 식품, 의약품 등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전날 천공기 76mm 시추작업은 구조 예상 지점인 지하 170m까지 도달했지만 목표 지점을 벗어나면서 실패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 한 아연 광산 갱도에서



구조당국이 고립된 작업자들의 생존 신호를 확인하기 위해 고립된 작업자 대피 예상지역에 천공기 2대를 이용해 170m 깊이 구멍을 뚫는 시추작업에 들어갔다.

매몰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조장 박모(62)씨와 보조작업자 박모(66)씨 등 광부 2명이 고립됐다.

제1수갱(수직갱도) 하부 46m 지점 갱도에 빨(샌드) 900여t(업체측 추산)이 쏟아지면서 수직 갱도를 막아 작업자들이 갱도에 갇혔다.

업체는 자체 구조작업을 펼치다

실패하자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 27일 오전 8시 34분께 소방서에 신고했다.

당국은 4교대 28명으로 구조대를 편성해 진입로 확보 및 매몰된 작업자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통로 시추작업을 하고 있다.

최이슬기자



생명을 살리는 힘, CPR 교육받는 초등학생들

1일 오전 대구 달서구 성지초등학교 안전체험교실에서 학생들이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고 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출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으로 심정지 환자의 '골든 타임' 4~5분 내에 실시할 경우 환자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1일 오전 대구 달서구 성지초등학교 안전체험교실에서 학생들이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고 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출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으로 심정지 환자의 '골든 타임' 4~5분 내에 실시할 경우 환자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41%

서울동북권 청소년 스마트폰·게임중독 실태조사

삼육대는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 장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동이일센터)가 서울 동북권 지역 청소년 41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게임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 스마트폰 과의존 잠재적 위험군이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이 약해져 대인관계 갈등이나 건강,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군과 스마트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대인관계, 건강,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9년 같은 조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잠재적 위험군은 21.7%, 고위험군은 3.5%로 집계됐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잠재적 위험군 33.7%, 고위험군 7.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잠재적 위험군은 12%포인트, 고위험군은 4%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남녀 비율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고

위험군이 2.4%에서 4.3%로, 여학생은 4.4%에서 10.9%로 2배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게임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신체활동이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상담 치료(17.8%), 조절 앱(12.0%) 순이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게임중독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놓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이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도 포함됐다.

게임중독의 질병분류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에 중학생 24.5%, 고등학생 31.8%, 대학생 60.0%가 알고 있다고 답하는 등 학령이 낮을수록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보고서 전문은 장동이일센터 홈페이지 전문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볼 수 있다.

이슬비기자